

푸코의 담론 이론과 『캔터베리 이야기』: 「방앗간지기의 이야기」와 「버스에서 온 부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 응 산

1. 서론

초서(Geoffre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만큼 중세의 여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낸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약 30명에 달하는¹⁾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연히 한데 어울려”(sondry folk, by aventure yfalle In felaweshipe)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배경에서부터 이미 다양한 계층에 대한 초서의 관심은 시작된다. 작자 초서는 이에 덧붙여 이야기 놀이라는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특정 계층이 주도가 되어 이야기의 향방이 결정되는 현상을 지양하고, 순례 여행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한껏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경험, 취향, 계급적 특색에 맞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또한 작품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작중 화자는 이를 다시금 순례 여행길에서의 이야기 모음으로 구성해내고 있다. 작중 인물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꾼이자 청자로서 기능하며, 이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논평을 덧붙여서 다시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중 화자 역시 이야기꾼으로 기능하고 있다.²⁾ 그리고 작중

1) 「전체 서문」(“The General Prologue”)에는 분명 “29명이 한 무리를 이루어”(nyne and twenty in a compaignye)라고 언급되고 있으나 이 숫자가 작중 화자와 여관 주인을 포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아울러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들의 숫자는 이에 턱 없이 부족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순례자들의 숫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2)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의 단상 『이야기꾼』(*der Erzähler*)에서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소설의 발생으로 인해 구전되는 이야기와 이야기의 화자의 역할이 미약해졌다고 하면서 기계의 힘으로 대량 복제된 소설이 아닌 보다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향수를 보여준다. 그는 이야기꾼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금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er macht es wiederum zur Erfahrung derer, die seiner Geschichte zuhören; Benjamin 443)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꾼이 된다는 이야기의 영원한 속성은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캔터베리 이야기』는 결국 작자 초서의 이야기

화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순례여행이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기능한다. 때문에 단순히 구전이나 사본으로 전해지기 때문이 아닌, 오히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 작품에서 소위 담론³⁾의 기능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겠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담론은 단순히 이들의 상상력의 표현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각자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통해 만들어진 구성체로서, 담론의 각 축장에서 이들의 ‘무기’가 되어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성취가 드러나는데, 작자 초서는 이 작품에서 당대 여러 계층들의 가치관이나 언어, 혹은 생활상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전쟁’을 통해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충돌, 반목, 혹은 타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주장, 그리고 그들이 지어낸 텍스트, 곧 그들의 서론과 이야기는 인물의 계층적, 성별적, 경험적 특성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서론과 이야기에서 이들의 욕망,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층 및 성별 등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변화시키거나 이를 넘어서서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근대 독자인 우리들은 이 작품 속에서 각 계층 간 아슬아슬한 반목의 현장과, 아울러 담론이라는 날 없는 칼을 통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결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체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계층에 있어서의 상승과 전복의 욕망 문제가 도드라지며, 담론의 우위를 점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앗간지기의 서문」(“The Miller’s Prologue”)과 그 이야기, 그리고 「바스에서 온 부인의 서문」(“The Wife of Bath’s Prologue”)과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담론의 우위를 쟁탈하고자 하는 계층 구성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서 담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층의 담론 전쟁을 구현한 초서의 의도는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담론에 대한 푸코(Michel Foucault)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문학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푸코의 연구가 가진 한계가 분명할지라도 당대의 사회적 심상과 권력 관계의 모순을 이야기에 녹여낸 초서의 시도와 사회 제반 조건과 현상들을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수렴하고자 했던 푸코의 시도는 맞는 바가 있어 두 사람의 작업을 엮어보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꾼으로서의 재주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푸코(Michel Foucault)를 위시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등장 이후 담론(discourse)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매우 광범위해졌으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담론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상의 한정이 필요하다. 이는 본론 첫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2. 푸코의 담론 이론과 그 가능성

이 작품의 담론의 양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내러티브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데이븐포트(W. A. Davenport)는 초서의 이야기들에 사회 구조 및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불평 토로(complaints)가 내재해 있다고 하면서 각 작품 속 인물들의 주장에 집중한다. 그에 따르면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한탄(lament)의 장황한 서술, 혹은 사용은 초서의 몇몇 작품 속에서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하며, 초서 작품의 문학 구조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한편, 레스터(H. Marshall Leicester)는 「바스에서 온 부인의 서문」과 그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이야기의 진행과 중단이 가지는 모종의 효과가 자신에 대해 이미 이야기되고 자신이 이미 정의된 상태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재편집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주체는 언제나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논리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그녀의 글은 허나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딘(Michaela Paasche Grudin)은 『캔터베리 이야기』의 여러 이야기들의 언어와 사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이탈리아 초기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에서 발화(speech)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읽어내고, 초서가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의 사고방식을 예측하거나 “읽어낼 수 있는” 도구”(a means of anticipating or “reading” others; Grudin 10)로서의 발화의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초서를 비롯한 초기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 발화에 대한 연구가 “사회의 감추어진 전제들을 밝혀내는”(uncover the hidden premises of society; Grudin 2)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믿음은 분명 담론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일종의 거울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허나 그녀 또한 담론과 발화(speech), 혹은 내러티브(narrative)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분석의 초점이 유기체처럼 생동하는 담론에 있다기보다는 발화로서의 담론, 곧 언어로서의 담론이 이루어내는 효과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지한 바대로 주로 내러티브적 측면에서 담론을 분석하고 있고, 이들 연구들에서의 담론의 정의 역시 다소 협의의 정의이므로 본고가 집중하고자 하는 언어 이상의 가능성을 지닌 담론으로서의 이야기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캔터베리 이야기』의 작중 화자를 포함한 여러 인물군상들의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엮어내고 견제하며 반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계층과 신분, 차이, 지배담론, 하위담론 등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때문에 작품 속 담론의 그물

망을 일종의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또한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일종의 언어활동으로서의 담론이 권력이라는 보다 큰 매개와 상호작용하는 현상은 프랑스 철학자 푸코에 의해 활발히 사유되었다. 옥스퍼드 철학사전(Oxford Dictionary of Philosophy)에 따르면 담론이란 “대화, 서사, 논의, 연설 등 한 문장 이상을 담고 있는 언어의 지속적인 확장”(A continuous stretch of language containing more than one sentence: conversations, narratives, arguments, speeches; 102) 이라고 일차적으로 정의된다. 원래 담론이란 용어가 단순히 서로 주고받는 말, 곧 대화나 논의를 의미했었으니 이와 같은 정의는 분명 틀린 것이 아니다. 허나 푸코는 이에 덧붙여 담론이라는 용어를 보다 큰 영역으로 끌어와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초서가 이 작품을 통해 구현해낸 담론 전장의 장은 오히려 담론이란 용어의 확장된 의미, 곧 푸코적인 담론을 염두에 둘 때 살펴보기가 보다 용이하다. 푸코는 프랑스 철학협회(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에서 행한 강연인 「저자란 무엇인가?」(“What Is an Author?”)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서구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다른 문화에 있어서), 담론이 처음부터 생산품, 사물, 혹은 일종의 상품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담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행위이며, 그것도 성(聖)과 속(俗), 합법과 불법, 신실함과 불경함 사이의 극단의 영역에 위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담론은, 소유라는 순환 구조에 매이게 되는 상품으로 변모하기 이전에 여러 위험으로 가득한 몸짓이었던 것이다.

In our culture (and doubtless in many others), discourse was not originally a product, a thing, a kind of goods; it was essentially an act—an act placed in the bipolar field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licit and the illicit, the religious and the blasphemous. Historically, it was a gesture fraught with risks before becoming goods caught up in a circuit of ownership. (Foucault 1984: 108)

인용문에 따르면 담론은 상충하는 가치체계의 이곳 저곳을 횡단하는 행위, 곧 본질적으로 언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담론이 어떤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聖)과 속(俗), 합법과 불법, 신실함과 불경함 사이의 극단의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담론이 가진 상대적 속성에 기인한다. 담론은 곧 지배 질서, 혹은 보다 푸코적으로 말해, 지배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길들여지거나 거부당하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끌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취임 강연인 「담론의 질서」(“The Order of Discourse”)를 위시한 여러 저작들에서 담론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비교적 초기작인 『지식의 고고학』(The Archeology of Knowledge)이나 『감시와 처

별』(*Discipline and Punish*)에서의 용례와 후기작으로 볼 수 있는 「담론의 질서」나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에서의 용례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담론이 일종의 언어적 활동으로서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기작과 후기작이 보여주는 담론 이론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실 그의 전체 작품의 이론 체계가 담론, 혹은 담론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지식들이 어떻게 권력과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떠올린다면 결국 그의 작업은 여러 가지 사회의 담론들을 살펴보고 파헤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푸코는 기본적으로 담론이 권력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렬히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서 담론의 생산은 몇몇 절차들에 의해서 동시에 통제되고, 선별되고, 구성되며 분배되게”(in every society the production of discourse is at once controlled, selected, organized and redistributed by a certain number of procedures; Foucault 1981: 52) 된다고 한다. 담론이 현실 권력에 의해 통제, 선별, 구성 및 분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담론이 모종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아이러니를 낳는다. 권력은 저항 담론의 억압과 통제를 위해 담론을 배제(exclusion)해야 함과 동시에 지배 담론의 영속을 위해 담론을 길들이며 재차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론의 상대적 속성과 맞닿는 논리이다. 「담론의 질서」에서 푸코는 전자, 곧 배제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배제를 “외적인 배제”(external exclusion)와 “내적인 배제”(internal exclusion)로 구분한다. 그는 담론에 대한 외적인 배제 행위로서 금지(prohibition), 구별(division)과 거절(rejection)이라는 과정이 실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또 다른 한편으로 담론이 자체로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텍스트가 가진(다고 여겨지는) 권위의 문제, 논평(commentary)의 문제, 누가 쓴 텍스트인가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저자(author)의 문제, 그리고 제반 학문분과의 편제(organization of disciplines) 등의 문제가 담론이 유통되고 사용되는 것을 내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소위 외적인 배제의 문제는 그것이 쉬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저항 주체들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겠으나, 내적인 배제의 문제는 담론 주체들의 의식 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또한 일종의 제도(institution)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공격할 수가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의 문제는 그것이 곧 권위의 문제, 원본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저항 담론의 원천봉쇄와도 같은 이와 같은 ‘어두운’ 전망은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란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정반대의 가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저자는 텍스트의 조각들을 모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편집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저자나 언술 주체는 소위 담론의 질서, 곧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된 체계 내에서 신비화되고 이상화

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문의 연장에서 푸코는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저자(author)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저자 기능(author function)이란 용어를 도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글쓰기(writing)라는 행위를 사유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글쓰기 주체가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문제”(a question of creating a space into which the writing subject constantly disappears; Foucault 1984: 102)라고 한다. 소위 원작과 모작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작품에서 텍스트라는 광의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위 있는’ 저자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져 가는데, 그 빈 공간을 푸코는 “한 사회 내의 특정한 담론들이 존재하고, 유통되며, 기능하는 양상”(the mode of existence, circulation, and functioning of certain discourses within a society; Foucault 1984: 108)이라 할 수 있는 저자 기능이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담론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음모의 사슬 속에 위치한 저자라는 내적 배제의 도구가 이처럼 담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종의 기능적 객체에 불과하다면, 담론의 활용을 통해 지배 권력의 지배 담론을 전유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성의 역사』 1권에는 이와 같은 담론의 이중적인 측면, 특히 그 가능성에 대한 푸코의 사유가 드러난다.

담론은 결코 권력에 공헌하지도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길러지지도 않는다. 침묵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우리는 담론이 권력의 기제일 수도, 효과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방해물이거나 장애물일 수도, 저항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거나 대항 전략의 시발점일 수도 있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과정을 감안해야만 한다. 담론은 권력을 전달하기도 생산하기도 한다. 담론은 권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권력을 훼손하거나 노출시키기도 하며, 권력을 나약하게 만들어 권력을 좌절시키게 만들기도 한다.

Discourses are not once and for all subservient to power or raised up against it, any more than silences are. We must make allowance for the complex and unstable process whereby discourse can be both an instrument and an effect of power, but also a hindrance, a stumbling-block, a point of resistance and a starting point for an opposing strategy. Discourse transmits and produces power; it reinforces it, but also undermines and exposes it, renders it fragile and makes it possible to thwart it. (Foucault 1990: 100-1)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만 인용문은 담론의 속성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인용문에 따르면 담론은 권력이 끊임없이 구애하거나, 혹은 배제해야만 하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은 권력의 시녀이거나 객체가 아닌, 권력을 강화하거나, 때론 좌절시킬 수도 있는 무한한 주체성을 가진 인식소인 것이다. 인용문은 결국 기존

지배 권력이 구성해낸 ‘담론의 질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담론 자체의 가능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3. 담론 놀이의 장으로서의 「서문」

초서가 각 인물들의 이야기와 서문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서문이 이야기를 생산해내는 저자, 혹은 소위 이야기의 주체⁴⁾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구성된 텍스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서문을 통해 각 계층 간 긴장과 반목을 드러내고, 이를 이야기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다시금 제시한다. 이야기의 주체와 이야기를 구분함으로써 초서는 이들의 계층적 특수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라는 문학적 담론의 도구를 통해 표현해낸다. 상상의 영역인 텍스트, 곧 이야기를 통해 각 인물들, 특히 당시 주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도전’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 현실 세계의 불만과 욕망이 서문에 드러나는 대화를 통해 1차적 담론의 형태로 제시되고, 이어지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2차적인 담론의 형태로 그 욕망이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작품 속 담론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 작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주요한 독해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거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서문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거나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들은 순례 여행길에서의 이야기놀이라는 큰 틀 속에서 때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에 반박하거나 이야기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순례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운명이지만 태생적 계급, 계층, 성별, 나이 등 이들이 가진 차이들은 순례도모인이라는 한 집단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균열과 반목이 이야기놀이의 주도권 다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 속

4) 물론 이 역시 “저자 기능”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품 전체를 살펴보자면, 이들 각 이야기의 화자들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담론 주체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담론 객체로, 혹은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이는 작품의 저자 초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화자와 초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으나, 만일 이 둘을 한 인물로 본다면 초서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이 만들어내는 텍스트들을 편집하거나 배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저술했다는 실증적인 팩트(fact) 이면에는 당대의 인물 군상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계층의 내러티브와 면모들, 그리고 농민 반란 등의 사회상이나 부상하던 자본주의의 맹아 등의 여러 맥락들이 담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푸코적 관점에서 이 작품이 드러내는 여러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두고서 오롯이 초서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권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야기놀이가 작품의 「전체 서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상을 전제로 한 일종의 경쟁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제일 잘 하신 분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께는
우리 모두가 돈을 각출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여기 이곳에 둘러앉아서요.
우리가 캔터베리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And which of yow that bereth hym best of alle--
That is to seyn, that telleth in this caas
Tales of best sentence and moost solaas--
Shal have a soper at oure aller cost
Heere this place, sittynge by this post,
Whan that we come agayn fro Caunterbury. (I.796-801)

인용한 부분은 이야기놀이를 제안한 여관 주인(Hoost)의 말로서 그는 순례자들의 신분이나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써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모두 이야기 놀이라는 전제에서 각자 자신이 담론을 주도하기 위해 싸운다. 당대 기존 질서의 창을 통해 바라본다면, 분명 계층적 차이와 차별이 확고하고, 하위 계층의 도전이 불가능한, 지배자의 입장에서 소위 ‘안정적인’ 사회 구조에의 확립이 지배 담론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더불어 중세 당시는 기독교의 논리, 곧 신의 말씀이라는 초월적 언어가 모든 다른 언어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다. 순례 여행이라는 배경, 그리고 각 인물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 작품은 기독교적 지배 담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 놀이라는 틀 안에서 각 인물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한계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다.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푸코는 “글쓰기는 언제나 그 자체의 규칙을 넘어서고 그 한계를 위반하는 놀이처럼 전개된다.”(Writing unfolds like a game[jeu] that invariably goes beyond its own rules and transgresses its limits; 1984: 102)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응용하자면, 담론의 “놀이”(jeu)를 통해 권력은 굴절되고, 파편화되며, 이를 통해 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게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담론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인물들로서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이야기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데에는 계층, 성별, 직업 따위의 외적 조건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을 비꼬기도 하고 상대가 이미 한 이야기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캔터베리로의 순례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 경연대회의 기록이라는 『캔터베리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서 경쟁에 대한 승리, 그리고 승리에 대한 보상의 준거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Tales of best sentence and moost solaas)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교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 전쟁터의 최대의 무기는 이야기의 내용인 것이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첫 이야기 주자는 기사(Knight)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 때 작중 화자는 “우연인지, 행운인지, 운명인지 몰라도”(Were it by aventure, or sort, or cas; L.844) 기사가 첫 주자로 뽑히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첫 이야기의 화자로 전통적인 계층구조의 상부에 위치한 기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이를 두고 화자가 마치 운명인 듯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목까지는 기존의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제시된다. 문제는 기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방앗간지기의 서문」에서 여관 주인이 수사(Monk)에게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된다. 첫 이야기 주자는 제비뽑기를 통해 ‘공정’하게 선택되었으나, 두 번째부터는 여관 주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공정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관 주인은 계층 및 기타 여러 차이를 무시하고 설정했던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 자신이 구축한 질서를 다시 파괴하고 구습(舊習)으로 돌아가려는 여관 주인의 행동은 일견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와 같은 설정은 이어지는 반동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구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관 주인의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바로 방앗간지기(Miller)이다. 그가 순례자들의 계층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농민계급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아울러 성직자 계층이나 상인(Merchant) 등의 중인 계층을 뛰어 넘어 기사 다음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이야기 놀이의 틀 안에서 현실적인 계층구조가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주님의 팔과 피와 뼈를 두고 맹세컨대, 난 기사님의 이야기에 응수할만한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By armes, and by blood and bones, I kan a noble tale for the nones, With which I wol now quite the Knyghtes tale; L.3125-127)⁵⁾라며 자신이 담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서슴없이 보여준다. 미천한 신분인 그가 기사의 이야기에 필적할만한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이를 들려주겠다는 것은 이야기의 교훈성과 오락성이란 것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의 계층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해 그는 현실 영역에서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이야기 놀이의

5) “By armes, and by blood and bones”는 중의적인 발언이다. 축자적으로는 위의 번역대로 기독교 문화권의 상부적인 맹세이지만, 중세 시대의 욕이 주로 신성모독에, 특히 예수의 육신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발언은 방앗간지기의 신분적 미천함과 언어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Horobin 159-165).

세상, 곧 담론의 영역에서는 기사에 뒤지지 않을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한편으로, 「바스에서 온 부인의 서문」에서는 여성으로서 지배 담론을 재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 그녀는 당대의 지배 담론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담론, 곧 성서를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을 많이 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속 다혼을 실행한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욕과 음탕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시 성경을 끌어오고 있기도 하다. 한편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를 옹아매는 전 남편을 두고서 “당신이 인용하는 성구(聖句)나 전례(典禮)에 따르며 행하는 일은 각다귀를 쫓는 것만큼이나 절대 하지 않을 것이야”(After thy text, ne after thy rubriche, I wol nat wirche as muchel as a gnat; III.346-47)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의 발언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일종의 설교의 방식으로 청자들에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⁶⁾ 총 856행의 서문 중에서 그녀는 무려 152행에 걸쳐 설교자의 어투로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전체 서문」에 묘사되고 있다시피 “완전히 미끈하고 새 것인 신발”(shoes ful moyste and newe)을 신고서 그 가격이 10파운드나 되는 스카프(coverchiefs)를 쓰고 다니는 그녀는 분명 부유한 여성임에 틀림없다. 한편으로 “옷감 짜는 기술로 말하자면 그녀는 이프레나 겐트의 직조공들을 능가했다”(Of clooth-makyng she hadde swich an haunt She passed hem of Ypres and of Gaunt; I.447-48)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충분한 기술을 갖춘 인물이다. 고로 바스에서 온 부인은 당시 부상하기 시작한 중산층 여인의 전형으로서 그녀는 여성이라는 자의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절대 다수의 하층민 여성들과는 그 선을 달리하며, 이와 같은 중산층 여인이라는 배경은 그녀가 당대의 조건과 자신의 물질적 권력에 힘입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격적인 그녀의 과거사사 시작되기 전에 면죄부 판매승(Pardoner)이 “하나님과 성 요한에 두고 맹세하건데, 당신은 태생적으로 훌륭한 설교자시군요.”(by God and by Seint John! Ye been a noble prechour in this cas; III.164-65)라고 감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두 인물이 일종의 희극적 차원에서 조롱받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6) 성직자가 아닌 일반신도의 설교와 이를 통한 성경 주석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최예정의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14세기 영국의 종교적 지형도」(2003)의 논의가 큰 도움이 된다. 그녀는 이 논문에서 바스에서 온 부인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물음과 성경 주석에 대한 의문이 당대 지배 담론인 성경에 대한 해석의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임에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비록 바스에서 온 부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는 당시 위클리프 운동이 일으킨 여파와 이에 대한 기층부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남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그녀는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시도는 기존 질서가 부여한 자신의 위치를 언어와 이야기를 통해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로 보기 충분하다.

푸코는 앞서의 「담론의 질서」에서 내적인 배제의 한 형태로 “언술 주체”(speaking subject)⁷⁾의 문제를 다룬다. 전 장에서 잠시 언급한 저자의 문제가 단순히 ‘누가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에게 저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였다시피, “언술 주체”의 문제 역시 ‘누가 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보다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푸코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혹은 애초에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담론의 질서에 들어갈 수 없다”(none shall enter the order of discourse if he does not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or if he is not, from the outset, qualified to do so; Foucault 1981: 61-2)라고 한다. 지배 권력이 만들어낸 규범에 어울리지 않는 “언술 주체”는 발언할 수 없거나, 발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담론의 질서 속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체 서문」에서 방앗간지기는 “그는 저속한 이야기와 익살스런 이야기를 곧잘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죄악 가득한 것이거나 매춘부에 관한 것들이었다”(He was a jangler and a goliardeys, And that was moost of synne and harlotries; I.560-61)라고 서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묘사는 과연 그가 적절한 “언술 주체”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전체 서문」에 드러나는 바스에서 온 부인(Wife of Bath)에 대한 묘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작중 화자가 그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이중적이다. 화자는 그녀에 대해 “그녀는 지금껏 살아온 내내 존경할 만한 여성이었다”(She was a worthy womman al hir lyve; I.459)라고 하고 있으면서 바로 다음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만 다섯이었고, 이는 젊은 시기에 함께 노닐던 다른 남자들을 제외한 것이다”(Housbondes at chirche dore she hadde five, Withouten oother compaignye in youthe —; I.460-61)라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worthy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존경할만한” 여성이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남자들을 많이 거느려서, “(여자로써) 가치 있는” 인물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색(色)을 밝히는 인물이, 게다가 중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주변 인물일 수밖에 없는 여성이 “언술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는 점이다.

7) 저자(author)가 저자 기능(author function)으로 대체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서 주체는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주체라기보다는 그저 발화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행위 주체 정도로 파악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들을 당당한 언술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적합한’ 언술 주체가 아니라는 타인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자신이 언술 주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언술 주체로 호명한다. 바스에서 온 부인은 “세상에 이에 관한 권위 있는 책들이 없지는 않지만,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혼의 비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적임자예요”(Experience, though noon auctoritee Were in this world, is right ynogh for me To speke of wo that is in mariage; III.1-3)라며 자신의 서문을 시작한다. 그녀의 언급은 결혼과 애정 문제를 발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위나 성별이라기보다 경험이라는 보편적인 준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순례 집단의 못 남성들이나 수녀원장 같은 여성들이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경험을 발화 자격의 준거로 삼음으로써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방앗간지기의 경우에는 담론에 대한 자의식이 보다 전면적으로 표출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관 주인은 이야기 놀이를 진행하면서 수사에게 다음 이야기의 주도권을 넘겨주려다가 방앗간지기가 끼어들자 그를 나무란다.

우리 여관 주인은 그가 맥주를 너무 마셔 취한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잠깐, 로빈, 자네, 보다 지체 높은 분이 먼저 이야기해주실 걸세. 기다리게나, 우리 이야기 놀이가 잘 진행되도록 가만히 좀 있게.” “성령에 맹세코” 방앗간지기가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죠.” “내가 이야기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난 그냥 내 갈 길 가겠단니까요.”

Oure Hooste saugh that he was dronke of ale,
And seyde, “Abyd, Robyn, my leeve brother;
Som better man shal telle us first another.
Abyd, and lat us werken thriftily.”
“By Goddes soule,” quod he, “that wol nat I;
For I wol speke or elles go my wey.” (I.3128-133)

여관 주인이 방앗간지기의 이야기를 저지하면서 수사를 “보다 지체 높은 분”이라 칭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의 주장은 달리 말해 현재 진행되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층이나 신분에서 따온 기존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방앗간지기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 갈 길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는 이와 같이 순례와 이야기 놀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순례 행렬에서 자진해서 나오으로써 지배적인 ‘담론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하는 기존 권력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언술주체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아울러 이로써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내러티브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한편으로 텍스트 내부의 지배 담론에 대한 정치적 전복이라는 효과를 창출한다. 언술주체의 비판적 자세에 대해서는 1978년 푸코가 프랑스 철학협회에서 진행한 강연 및 토론록인 「비판이란 무엇인가?」(“What is Critique?”)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비판이란 주체가 이를 사용하여, 그 권력 효과와 관련하여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양산하는 진리라는 담론에 관련하여 권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다”(critique is the movement by which the subject gives himself the right to question truth on its effects of power and question power on its discourses of truth; Foucault 2007: 47)라고 말하고 있다.⁸⁾ 방앗간지기의 행동은 분명 진리라고 여겨지는 지배 담론에 관련되어 있는 권력 구도를 의문시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비판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담론은 권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 권력을 나약하게 만들어 권력을 좌절시키게 만들기도 한다”는 담론의 상대성에 대한 푸코의 언급은 방앗간지기를 비롯한 두 화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이야기 놀이라는 담론의 “놀이”판이 가능하게 한 효과들이다.

4. 저항 담론의 표출로서의 「이야기」

각 「서론」들에 비해 「이야기」들에서는 화자들 간의 갈등이나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허나 「이야기」들은 “저자 기능”으로서의 화자들, 혹은 “언술 주체”로서의 화자들이 구성한 본격 담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서론」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방앗간지거나 바스에서 온 부인은 각각 계층적 구조에서, 그리고 젠더 질서의 측면에서 성직자들을 비롯한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의 반대편에 위치한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기사(Knight)는 전통적 지배 질서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방앗간지기와 바스에서 온 부인과는 가치관에서나 이해관계에 있어서나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인물들에게 기사의 존재는 매우 의미미하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고전의 인유가 풍부한 정통 로맨스인 「기사의 이야기」(The Knight's Tale)의 패러디, 혹은 대항 담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담

8) 여기서 푸코는 “Truth”(vérité)를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고로 “discourses of truth”(discours de vérité)는 (권력에 의해서) 진리라고 여겨지도록 만들어진 담론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진리라는 담론”으로 번역하였다. 일부 푸코 저작의 국역본에서는 이를 구분 없이 모두 “진리”, 혹은 “진실”로 번역하고 있으나, 문맥에 따라 이 용어는 달리 번역하여야 한다.

론이 결국엔 일종의 언어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라면 이를 전복하는 행위 역시 언어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했다시피 담론이 기본적으로 “행위”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언어 행위로서의 이야기 구성은 지배 담론의 재구성일 수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담론의 전복일 수도 있는 것이다. 푸코는 「담론의 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세계는 우리의 지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계를 우리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담론에 선행하는 섭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담론을 우리가 사물에 행하는 일종의 폭력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혹은 우리는 담론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실천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The world is not the accomplice of our knowledge; there is no predisursive providence which disposes the world in our favor. We must conceive discourse as a violence which we do to things, or in any case as a practice which we impose on them; (Foucault 1981: 67)

여기서 “사물”(things)이라는 말은 물건의 의미가 아니라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제반 사항이나 조건들 모두를 통칭한다. 담론이 이들 사물에 가하는 폭력이거나 실천이라고 한다면, 지배 권력의 담론의 질서를 뒤집을 힘 또한 담론 자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담론 전쟁에 있어서 서로의 담론 체계에 저항하는 수단이자 서로의 담론 체계를 전복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이야기와 방앗간지기의 이야기는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각각 로맨스(romance)와 패블리오(fabliau)로 볼 수 있다.⁹⁾ 장르가 목적하는 바가 다르듯이 두 이야기 역시 표면적인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대상과 소재는 매우 유사하다. 방앗간지기의 이야기는 기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한 여자를 두고 복수의 남성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구도 역시 기사의 이야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허나 기사의 이야기에서 방앗간지기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신성한 결혼으로 향하는 두 남녀의 결합은 하룻밤 정사를 위한 육체적 결합으로 변모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한 사랑임에도 오직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의 사랑은 질투심 가득한 남편의 집착(“Myn housbonde is so ful

9) 하지만 멜(Dieter Mehl)은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기사의 이야기」와 「방앗간지기의 이야기」가 서로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각 장르적 속성이 상대 장르에 침투하여 독특한 면모를 자아내고 있기에, 각각 궁정 로맨스(courtly romance)와 패블리오(fabliau)의 양식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각각 ‘순수한’ 형태의 내러티브 장르”(a ‘pure’ type of narrative)로 볼 수는 없다고 진단한다(Mehl 157-58).

of jealousy”; I.3294)으로 변모한다. 전통적인 기사 로맨스, 혹은 아서왕 로맨스의 여주인공에 대한 이상화 또한 방앗간지기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목수의 아내 앨리슨(Alison)은 이미 그 묘사에서부터 기사 로맨스, 혹은 아서왕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전형성에서 벗어난다.

이 어린 아내는 아름다웠고, 게다가
마치 족제비처럼 그녀의 몸은 섬세하고도 호리호리했다네.

그리고 진정 그녀는 교태어린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양 눈썹은 가지런히 다듬어
그 휘어진 눈썹이 마치 산자두 빛깔처럼 검디검었다네.

Fair was this yonge wyf, and therewithal
As any wezele hir body gent and smal.

And sikerly she hadde a likerous ye;
Ful smale y pulled were hire browes two,
And tho were bent and blake as any sloo. (I.3233-246)

기사의 이야기 속 여주인공 에밀리(Emelye)에 대한 외양 묘사가 최대한 절제되어 있음¹⁰⁾에 반해, 위의 인용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앨리슨의 외양 묘사는 그녀의 육체와 그 관능적인 면모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앨리슨이라는 인물은 고귀함으로 인해 기사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바치게 만드는 그러한 면모를 지닌 귀부인과는 분명 다르며, 아울러 “이 목수의 아내는 그의 그 모든 감시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다네”(swyved was this carpenteris wyf, For al his keypyng and his jealousy; I.3850-851)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애의 대상이어야 할 아름답고 청순한 여성은 한낱 요부로 제시되고 있다.

방앗간지기가 기사의 이야기, 곧 로맨스를 빗대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압솔론(Absolon)의 일화에서 도드라진다. 목수의 부인 앨리슨에 반해 그녀에게 구애하는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은 「기사의 이야기」에서 한 여자를 두고 사랑에 빠진 우수에 찬 두 기사, 곧 팔라몬(Palamoun)과 아르시테(Arcite)의 말과 닮아있

10) 이야기 속 에밀리의 첫 등장 장면에서 화자는 “에밀리, 푸르른 줄기 위의 백합꽃보다 더 아름답고, 새로 핀 꽃들이 만개한 오월보다 더 신선하다네”(That Emelye, that fairer was to sene Than is the lylie upon his stalke grene, And fressher than the May with floures newe—; I.1035-037)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가 그녀의 육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비유를 통한 우아한 아름다움의 묘사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¹¹⁾

“그대, 벌집과도 같이 달콤한 앨리슨,
 내 아름다운 새 같은, 내 달콤한 계피 같은 그대
 일어나요, 내 사랑, 내게 말 좀 해줘요!
 그대는 내 고통에 대해 별로 생각지 않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가는 곳마다 땀이 날 정도로 고생한다오.”

“What do ye, hony-comb, sweete Alisoun,
 My faire bryd, my sweete cynamone?
 Awaketh, lemman myn, and speketh to me!
 Wel litel thynken ye upon my wo,
 That for youre love I swete ther I go.” (I.3698-702)

전형적인 페트라르카적 구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압솔론은 더 이상 말을 타고 들
 판을 내달리는 기사도 아니요, 패전으로 포로로 잡힌 우수에 젖은 기사도 아니다. 그
 는 단지 “다소 신경질적인”(somdeel squaymous) 인물로서 결국 앨리슨과 니콜라스
 (Nicholas)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인해 앨리슨의 입술이 아닌 그녀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치욕을 얻게 되는 바보 같은 인물일 뿐이다. 이로써 기사의 이야기, 곧 로맨스 장르는 전
 복된다. 패터슨(Lee Patterson)은 이를 두고 「방앗간지기의 이야기」에서 조롱 당하고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등장인물 압솔론(Absolon)과 니콜라스, 그리고 존(John)에게 일
 어났던 일이 방앗간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Patterson 244). 이 말인즉 원본 이야기를 패러디함으로써 방앗간지기는 원본 이야
 기의 화자인 기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계급의 이야기인 로맨스 장르가 이
 처럼 패러디되고 있듯이, 지배 담론으로서의 기독교 담론 역시 방앗간지기에 의해 재평
 가된다. 이야기 속에서 앨리슨과 니콜라스는 밀회를 즐기기 위해 앨리슨의 남편 존에
 게 노아의 방주 때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홍수가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순박한
 목수 존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통 속에 들어가 침묵의 기도를 올리다가 결국 팔이 부
 러지는 수모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물론 이 대목에서는 “아, 감정이란 얼마
 나 거대한 것이던가! 사람은 강력한 충격을 받는다면 상상만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은
 가”(Lo, which a greet thyng is affeccioun! Men may dyen of ymaginatioun, So

11) “저 곳을 거니는 저 청초한 미인이 나를 갑자기 칼로 베어놓는구나. 만일 내가 그녀의 자비
 와 은총을 갖지 못하여, 아니 적어도 그녀를 볼 수조차 없다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 더 이상 말해봐야 뭐하겠는가”(The fresshe beautee sleeth me sodeynly Of hire that
 rometh in the yonder place; And but I have hir mercy and hir grace, That I may
 seen hire atte leeste weye, I nam but deed; ther nis namoore to seye; I.1118-122).

depe may impressioun be take; I.3611-613)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무지몽매한 서민의 우스꽝스러움과 감정적인 것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 풍자되고 있는 하다. 허나 이에 덧붙여 이와 같은 풍자가 성경의 일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성경의 알레고리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담론에 대한 회의주의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바스에서 온 부인의 이야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사 계층의 장르인 로맨스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그녀의 이야기가 일종의 로맨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작품은 전형적인 중세 로맨스대로 아서 왕의 궁정이라는 배경(setting)을 갖고 있으며, 위험에 처한 기사의 탐색(quest)의 문제가 내러티브의 주된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환상적인 요소(the marvel)가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아서 왕 로맨스의 틀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일반적인 아서 왕 로맨스와는 구분된다. 아서 왕의 궁정은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나 『아서 왕의 죽음』(*Le Morte Darthur*)의 것처럼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다.

그런데 이 아서왕의 궁정에는
 호색한인 젊은 기사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물새 사냥을 마치고 오는 길에
 그는 홀로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앞으로 한 처녀가 걸어나는 것을 보았다네.
 이내 그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그녀의 처녀성을 앗아가 버렸다네.

And so bifel that this kyng Arthour
 Hadde in his hous a lusty bachelere,
 That on a day cam ridynge fro ryver,
 And happed that, allone as he was born,
 He saugh a mayde walkynge hym biforn,
 Of which mayde anon, maugree hir heed,
 By verray force, he rafte hire maydenhed; (III.882-88)

아서 왕이 부리는 기사는 길 가던 처녀를 겁탈할 정도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겁탈, 곧 강간의 이미지는 이미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 많은 인유가 되고 있다. 바스에서 온 부인은 “그(탁발수사)가 끼치는 해악이라곤 그저 여성의 정조를 범하는 것뿐이지요”(And he ne wol doon hem but dishonor; III.881)라며 종교인들에 대한 비평과 함께 당대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성직자들이 강간의 주역

이 되고 있듯이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기사가 강간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서왕의 궁정은 명예롭지 않고, 로맨스의 세계는 부정이 팽배한 곳이 되고 있다.¹²⁾

한편,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로맨스 장르의 주인공인 기사가 매우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그에 반해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 자신 역시 기사인 왕은 왕비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인물인지라 겁탈을 행한 젊은 기사의 목숨을 두고서 “모두 그녀 마음대로 하도록 그를 그녀에게 맡기는”(yaf hym to the queene, al at hir wille; III.897) 인물이다. 왕비가 기사의 목숨을 담보로 그에게 부과하는 과제인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What thyng is it that wommen moost desiren; III.905)을 알아오라는 것 역시 여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남성이라는 생득적인 성별을 가진 기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과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때 개입하는 것이 소위 요정의 힘인데, 인간인 기사는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운명이다. 못생긴 늙은 노파임에도 그녀의 의지에 따라 그녀와 결혼해야 하는 기사는 분명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로맨스 장르에 대한 회의는 이미 그녀의 서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현명한 여자라고 하는 치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마련이다”(A wys womman wol bisye hire evere in oon To gete hire love, ye, ther as she hath noon; III.209-10)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곧 사랑의 마법에 허우적대는 이들의 이야기인 로맨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해 기사의 이야기에 대한 회의와 푸념, 그리고 그 허위의식에 대한 폭로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야기 놀이에 있어서의 담론의 주도권 싸움이 있고, 이야기 속에서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있다. 그리고 바스에서 온 부인의 이야기에서 그 권력은 이미 여성의 몫이다. 그녀의 이전 네 명의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다섯 번째 남편도 그녀의 한쪽 귀를 멀게 한 죄로 끝까지 그녀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패권은 성취적인 이야기를 통해 영속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

12) 물론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나 「아서 왕의 죽음」과 같은 남성서사 중심의 전형적 아서왕 로맨스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는 존재한다. 두 작품 모두 같듯이 촉발되는 작품의 서두에 각기 진기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를 대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의 반응은 실로 용맹함과는 거리가 있다. 전자의 경우 파티의 여흥에 젖어 있는 기사들 앞에 나타난 녹색의 기사의 도전에 자신있게 나서는 기사들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물 위를 떠다니는 돌에 박혀 있는 칼을 빼보라고 지시하는 아서 왕의 말에 기사들은 그것의 실패로 인해 실추할 자신들의 명예가 두려워 쉬이 명을 따르지 못한다. 아서 왕 궁정의 기사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소심하고 몸을 사리는 이들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바, 여성을 겁탈한다는, 곧 당대 여성이 처한 현실적 폭력성의 문제가 기사라는 계층의 허위성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위의 남성서사 중심의 아서왕 로맨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속성은 이미 남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로맨스의 다시쓰기, 곧 지배 담론의 전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쓰기’(rewriting)에 대한 그녀의 열망은 이미 그녀의 서문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의 서문에서 “만일 여자들이 자신의 예배당 속에서 글이나 쓰는 서기처럼 이야기를 지어낼 수만 있었다면”(if women hadde writen stories, As clerkes han withinne hire oratories; III.693-94)이라고 하면서 지배 질서가 강제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된 여성들이 담론의 주제, 혹은 “언술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이 주된 독자였음에도 글쓰기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주로 집필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로맨스를 여성인 바스에서 온 부인이 다시 쓰고 있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남성이자 지배 계급인 기사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구축하는 저항 담론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녹여 내어 현실상의 명백한 권력현상을 ‘담론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바스에서 온 부인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탁발수사의 서문」(“The Friar’s Prologue”)에서 탁발수사는 소환원(Summoner)을 두고 “어느 마을을 가든 언어터지면서 끝나는”(ybet at every townes ende) 사람이라며 조롱을 한다. 이에 대해 소환원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됐습니다.” 소환원이 말했다. “그냥 지껄이게 놔두세요.
그가 하고 싶은 얘기들어요. 내 차례가 올 때
신께 맹세코 은화 한 닢의 모욕까지 모두 다 갚아 줄 테니까요.”

“Nay,” quod the Somonour, “lat hym seye to me
What so hym list; whan it comth to my lot,
By God, I shal hym quiten every grot. (III.1290-292)

소환원이 “은화 한 닢의 모욕까지” 갚아준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탁발수사를 조롱하고 풍자하겠다는 의미이다. 대립과 반목의 장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는 바로 이야기이다. 이 순례여행의 이야기놀이의 틀 속에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패러디함으로써 상대가 만들어낸 담론 체계를 전복시키고, 이로써 상대의 계층이나 가치관 역시 전복시키게 되는 것이다.¹³⁾ 자신들의 이익이나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의 언급이나 이야

13) 이런 이유로 작중 화자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자는 할 수 있는 한 원래의 이야기

기를 상대가 진행할 때 작중 인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데, 그 방식은 또 다른 이야기, 곧 자신이 대표하는 계층이나 성별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담론 체계를 구성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위 저항 담론을 이용한 지배 담론의 전복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서술 전략이다. 방앗간지기는 음탕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기사의 근엄하고 우아한 로맨스에 도전장을 펼친다. 아울러 버스에서 온 부인은 로맨스 장르에 대한 다시 쓰기를 통해 남성적 내러티브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들은 푸코가 언급한 바대로 “성(聖)과 속(俗), 합법과 불법, 신실함과 불경함 사이의 극단”을 넘나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서가 이들 두 인물들의 언어를 이들과 다른 계층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작중 화자의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푸코의 “저자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자 초서의 비판적 입장과는 상관 없이 텍스트 자체에서 생성되는 긴장과 정치성의 역할은 분명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중세 텍스트에 대한 현대 독자의 소위 ‘현대적’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서의 텍스트 자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계층 전복이 이야기 놀이의 세상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방앗간지기와 버스에서 온 부인은 각기 농민계층의 일원으로서, 또한 여성이라는 당대 피억압계층의 일원으로서 현실에서 권력을 박탈당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그러나 이야기 놀이라는 담론 놀이를 한껏 활용하여 현실의 제한을 뛰어넘고 위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담론이 궁극적으로 “저항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거나 대항 전략의 시발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해주는 인물들인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가 오늘날 곱씹어 볼 진취성을 지니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버려진 것들’, 혹은 지배 담론에 의해 잊혀진 ‘유령들’이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 되살아나고 스스로를 역사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면모들 때문이리라.

참고문헌

최예정,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14세기 영국의 종교적 지형도」, 『안과밖』 15 (2003):

에 가깝게 옮겨야 하나가요. 단어 하나라도요”(Whoso shal telle a tale after a man, He moot reherce as ny as evere he kan Everich a word; I.725-33)라는 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작중 화자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화자로서 “원래의 이야기에 가깝게”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이야기를 패러디하고 짜깁기하여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 화자가 취하는 중립성은 여러 계층의 주장이 상충되는 담론의 전투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원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102-25.

- Benjamin, Walter. *Gesammelte Schriften*. Bd. 2. 1991.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9.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Davenport, W. A. *Chaucer: Complaint and Narrative*. New Hampshire: D. S. Brewer, 1988.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1978. New York: Random House, 1990.
- _____. "The Order of Discourse." *Untying the Text: A Post-Structuralist Reader*. Ed. Robert Young. London: Routledge, 1981. 48-79.
- _____. "What Is an Author?" *The Foucault Reader*. Ed. Paul Rabinow. Harmondsworth: Pantheon, 1986. 101-23.
- _____. "What is Critique?" *The Politics of Truth*. Ed. Sylvère Lotringer. LA: Semiotext(e), 2007. 41-81.
- Grudin, Michaela Paasche. *Chaucer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6.
- Horobin, Simon. *Chaucer's Langua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Leicester, H. Marshall, Jr. "Subject, Dream, and Rape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The Wife of Bath*. Ed. Peter G. Beidler. Boston: St. Martin's, 1996.
- Mehl, Dieter. *Geoffrey Chaucer: An Introduction to His Narrative Poetry*. New York: Cambridge UP, 1986.
- Patterson, Lee. *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 London: Routledge, 1991.

ABSTRACT

Foucault's Discourse Theory as a Method of Reading *The Canterbury Tales*

Ungsan Kim

Although many recent studies on *The Canterbury Tales* have focused on discourse analytical approaches, the notion of discourse as not just linguistic but as a power-related structure in general, or in other words discourse as a Foucaultian concept, has been fairly overlooked. Chaucer deploys the tale-telling game in this work, which results in imaginary power exchange and class reversal through discourse. The discourse mediated by the storytellers including narrator projects desires either to amend and transcend or to stabilize and maintain the social norms inflicted upon its agents, reflecting class, gender, and religion struggle. So the tale-telling game amplifies the contradictory desires of the storytellers' making the narrative itself a battlefield. According to Michel Foucault, this contradictory quality is already an attribute of discourse. As Foucault points out, the discourse of truth, or precisely speaking, the discourse fashioned as 'truth' by hegemonic class or society might transmit and produce power as much as it might also become a point of resistance to 'the truth' when acculturated by power-excluded subjects. In both cases, discourse reveals power structure and domesticates subjects, or eventually fashions subjects. In this regard, the narrative in *The Canterbury Tales* functions as a proxy war gaining power, which is virtually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The weapon of overpowering the opponents is story itself. The storytellers in this work reverse the discourse of others by reconstructing the normative discourses. For instance, Miller's parodying and desacralizing the Knight's Tale in his own tale, and The Wife of Bath's rewriting the masculine romance genre could be interpreted as efforts to deconstruct the social norms and reconstruct the desires of power reversal. In short, in this work, the discourse itself empowers these historically forgotten subjects as significant

speaking subjects.

Key Words discourse, discourse of truth, *The Canterbury Tales*, Foucault, power reversal, speaking subject

